

거칠고 험한 길을 편하게 걷기 위해서
모든 길을 가죽으로 덮을 수는 없다.

그러나 내 두발에 가죽구두를 신으면
모든 길을 가죽으로 덮은 것과 같다.

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,
거칠고 험한 적은 수없이 많아서
다 상대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.

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
분노나 고통을 다스릴 줄 안다면
이 모든 적을 이기는 것과

무엇이 다르랴

깊어가는 가을, 한 산사에서 마주한 글입니다. 한동안 발을 땀 수가 없었습니다.
험난한 세상 풍파를 견디고 나아갈, 한 켄레의 가죽신이 필요합니다.
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, 그런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.

Written by C.E.O James Roh(노상충)



James Roh

